



폐암 검진 권고안

30갑년 이상 흡연자는 매년
저선량 胸부 CT로 폐암 검진을 받으세요



NATIONAL CANCER CENTER



국가암정보센터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본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가 체계적인 근거평가 방법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검진 대상 30갑년 이상 흡연자

30갑년*이상 흡연하신 55세에서 74세까지 고위험 흡연자는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0갑년 이상 흡연하였으며 금연한지 15년이 안된 과거흡연자는 검진을 받으세요.

*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1갑씩 30년간 흡연한 경우, 1갑X30년간=30갑년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 2갑X15년간=30갑년

$$\boxed{\quad} \text{갑씩} \times \boxed{\quad} \text{년간} = \boxed{\quad} \text{갑년}$$

검진 효과 폐암 사망률 ↓

폐암은 전체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입니다.

흡연자의 경우 폐암 검진을 받으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폐암 검진으로 폐암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10.6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검진 방법

저선량 흉부 CT

폐암 검진은 저선량 흉부 CT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 폐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방사선 사용량이 일반적인 흉부 CT의 1/10 수준입니다.

단순 흉부 X-선 촬영, 객담 세포진 검사, 혈청 종양표지자는 폐암 검진 방법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검진 간격

1년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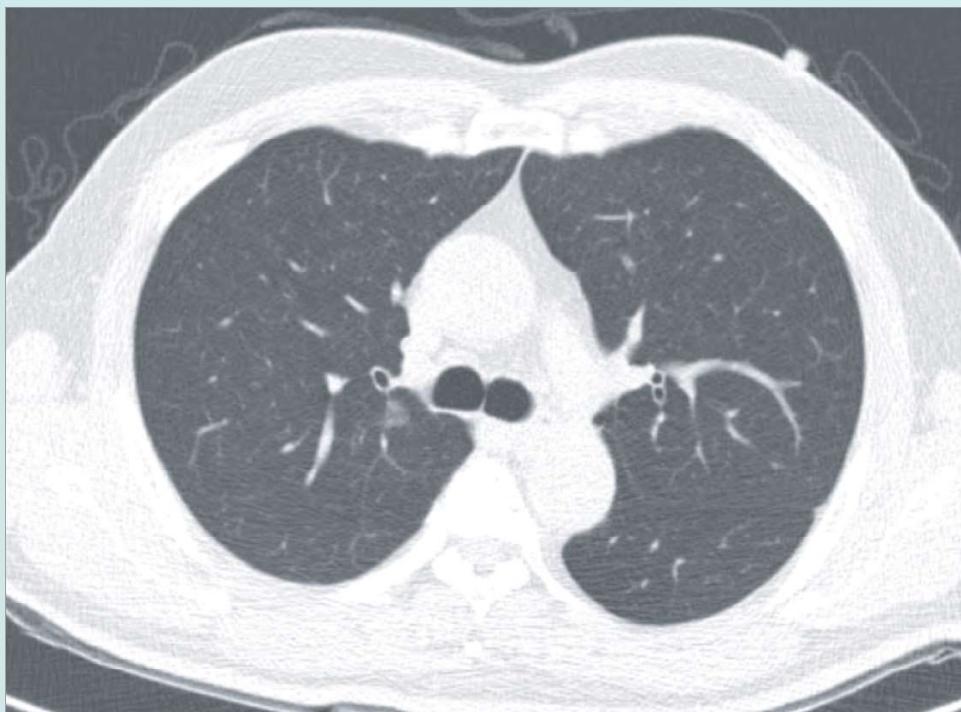
폐암 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는 1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



폐암 검진 방법 및 주의사항

저선량 흉부 CT



저선량 흉부 CT는 원형의 기계에 들어가서 흉부를 촬영하여 폐 안의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일반 흉부 CT에 비해 방사선량을 1/10 정도로 줄인 검사 방법입니다.

저선량 흉부 CT에서 발견되는 이상 병변은 폐암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확인을 위한 2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선량 흉부 CT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5세에서 74세까지
하루 1갑씩 30년 이상 흡연자



1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폐암 사망률 감소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

폐암 검진 권고안

30갑년 이상 흡연자 55세 이상 74세 이하이시면
매년 저선량 흉부 CT를 받으세요

금연 15년 이하 과거 흡연자 55세 이상 74세 이하, 30갑년 이상 흡연하셨다면
매년 저선량 흉부 CT를 받으세요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ncer.go.kr

1577-8899